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48호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업무보고

문체부, '인권 존중되는 체육 현장 지원' 강화

김용석 뉴스핌 기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스포츠 / 한국일보

1. “전명규 강압훈련에 반발 조재범, 코치 되더니 폭력 대물림”
2. ‘국위선양이 왜 감형 사유인지’ 실형 피해가는 체육인들
3. ‘남성 천하’ 스포츠계...성추행 당해도 참아야만 했다
4. 222차례 돈 뺏은 코치, 편파판정 대가로 1억원 챙긴 심판
5. 한 번도 힘든 ‘미투’ 빙상 선수는 왜 두 번 했을까
6. ‘최속현 동료’의 2차, 3차 피해 “나쁜 기억만이라도 지워지길”
7. 학폭 선수, ‘원스톱 시스템’으로 대학진학부터 국대 발탁까지 막는다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업무보고] 문체부 '인권 존중 되는 체육 현장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내년도 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을 업무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체육분야의 경우, 스포츠산업 지원과 클럽 활성화에 방점을 둔 문체부는 '인권 강화'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인권이 존중되는 체육 현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체육 현장에서 인권을 강화하면서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포츠과학 투자에 126억원을 투입하는 등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수육성 패러다임 전환에 힘쓰기로 했다.

체육분야 인권존중과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를 열었다. 또한 올 2월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및 지역사무소(올해 3개소 확충→2022년 5개소)도 확충하고, 학교폭력 가해 선수 징계 정보 공유를 통한 대회 출전 제한 및 인권 교육 확대 등 학교 운동부의 폭력을 근절하는 정책도 계속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선수 징계정보 공유를 통한 대회 출전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 교육 확대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개최로 인한 한반도 화해 분위기도 꺾인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린 이후인 2024년엔 강원도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청소년올림픽은 강릉, 평창, 횡성, 정선 4곳에서 개최된다.

“전명규 강압훈련에 반발 조재범, 코치 되더니 폭력 대물림”

“제자들을 안 때리니까 전명규 교수가 욕을 하더라고요.”(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A씨)

“전명규 교수 비호로 개인 강습을 했던 코치들은 매달 수천만 원을 벌기도 했어요.”(전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코치 B씨)

빙상계 '악의 축'으로 평가받았던 한국체대 전 교수 전명규(58)씨가 파면당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긴 악습은 여전히 빙상계를 떠돌고 있다. 전직 빙상선수들은 빙상계에 각종 사건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증언했다. 금메달에 모든 것을 걸고 전씨에게 강압적인 훈련을 받은 선수들은 '폭력 코치'로 변신했고, 그들은 전씨가 독점한 빙상경기장을 사용하며 사설 강습으로 돈을 벌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도 상당수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조재범 동료 증언 “피해자가 가해자로”

A씨는 전씨가 감독을 맡고 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2000년대 초반 은퇴했다. 그는 국가대표팀으로 활동한 5, 6년 동안 지도자들 폭행에 집중적으로 노출됐다. A씨는 한국일보와 만나 감정적인 체벌을 상습적으로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자 방으로 끌려가 폭행당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좁은 공간에 혼자 남게 되면 심적으로 힘들다”고 전했다.

A씨가 전씨 밑에서 훈련하던 시기에 조재범씨가 대표팀 선수로 합류했다. A씨가 기억하는 조씨는 여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그는 “(조재범) 선배는 내가 맞는 광경을 보고 '이럴 거면 나는 선수로 못하겠다'며 스스로 태릉선수촌을 나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훈련 방식을 강요했다. 2000년대 후반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도 맡았던 A씨는 당시 한체대 교수로 있던 전씨가 제자들을 안 때리는 자신을 나무라며 '애들을 짐승같이 부려라'며 욕설 섞인 지적을 수시로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조씨는 전씨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2011년부터 7년간 심석희 선수 등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훈련시켰다. 선수 시절과는 달리 코치가 된 뒤부터는 폭력을 대물림한 것이다.

코치들이 전명규씨에게 줄을 선 이유는 또 있었다. 2010년쯤부터 2년 동안 한체대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보조코치로 일했던 B씨는 “전씨가 빙상장 대관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전씨의 제자 출신 코치들은 학생들 수십 명을 거느리고 한체대에서 개인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쇼트트랙 학생 10명 이상을 강습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데, 조씨가 한체대에서 강습한 학생이 4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며 “전씨 비호를 받은 코치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렸다”고 전했다. 전씨가 한체대 빙상장을 사유화한 행태는 2019년 2월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낱알이 드러났다.

다음 장 계속



“악습 안 끝나… 피해자에 침묵 강요”

그렇다면 빙상계는 전명규의 그늘에서 벗어났을까. 안타깝게도 대다수 빙상인들은 악습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는 “선수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퇴출됐던 빙상 선수와 지도자들이 6개월~1년 뒤 현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14~2020년 각종 비리로 징계받은 체육인 1,171명 가운데 31%(372명)가 복직하거나 재취업했다. 빙상 종목에선 78명 중 39명이 현장으로 돌아와, '복귀율'이 50%에 달했다.

징계받은 인사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귀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 교수는 “가해자들이 복귀하는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허탈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를 더욱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으로 돌아오는 감독·코치들이나 남아 있는 지도자들 모두 ‘한식구’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문제다. 특정 학교 출신이 독식하는 빙상계의 폐쇄적 구조 때문이다.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한체대 출신에게만 지원을 밀어주는 빙상계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하다”면서 “다른 대학과 지역의 빙상 인프라를 키워서 경쟁자들이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자가 제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는 구시대적 훈련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빙상 종목에선 개인 지도가 일반화돼 있어 지도자의 과잉 개입과 감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지도자는 훈련에만 관여하고, 선수 생활은 별도 관리자에게 맡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랙티브\] 전국 '징계 체육인' 1,187명 현황공개](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athletics_discipline/)

페이지링크 :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athletics_discipline/

※ 포털사이트 환경에서 인터랙티브에 접속하려면 위 주소를 전체 선택해 새 인터넷 창에 붙여넣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주소가 보이지 않으면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국위선양이 왜 감형 사유인지’ 실형 피해가는 체육인들

폭력·성폭력·금품수수·승부조작 등 대한체육회가 정한 4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인들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1심부터 벌금이나 집행유예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일보가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체육계 인사들의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사유들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일보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성폭력·금품수수·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체육인들의 1심 판결문 85건을 분석한 결과, 양형 사유에 '지도자·선수·심판으로서의 공로나 업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건이 1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형이 아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체육인으로서 공로나 업적이 있으면 죄를 저질러도 감형 사유가 된다는 뜻이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체육인 범죄의 고질적인 특징은 판결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애인 특수경기 지도자 A씨는 2010년 5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경기력·정신력 강화를 명분으로 중증장애인 남녀 선수 3명을 10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씨는 '국제대회 방문을 위해 비행기 값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그러나 A씨에게 실형이 아니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시간 선수들을 성실히 지도하여 국제대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체육계에 기여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지도자도 그간의 기여와 성실성을 인정받아 실형을 피했다. 경남 진주의 초등학교 체육교사 B씨는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회에 걸쳐 12세 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B씨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상당 기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로 밝혔다.

다음 장 계속



승부조작 범죄의 양형 사유에도 피고인의 '공로'가 포함됐다. 특정팀에 유리한 편파 판정 대가로 2008년부터 4년 동안 농구팀 지도자들에게 16차례에 걸쳐 2,650만 원을 받은 경남지역 농구 심판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농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여할 바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들었다.

선수에게 사기를 친 지도자도 체육계에 끼친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경북지역 복싱 감독 D씨는 2013년 실업팀 입단 계약이 성사된 제자 4명을 상대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신경써 준 체육회 간부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2년간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뜯어냈다. 그러나 D 감독의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재판부는 "체육교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지역 복싱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를 양형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D 감독은 2015년부터 약 9개월간 지역 체육회 산하 복싱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다.

공로와 기여, 국위선양 등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등 41개 범죄군의 형량 감경 요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본보의 판례 분석을 자문한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리걸엔진'의 박성남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세운 공(功)은 범죄 피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이런 부분이 양형 요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안별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를 수행했던 정지원 변호사도 "1심 형량이 상급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판 초기에 '공로 인정'을 쉽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남성 천하’ 스포츠계... 성추행 당해도 참아야만 했다

여자 소프트볼 대학팀 감독 A씨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A씨는 자신의 방으로 선수들을 불러 청소와 빨래, 설거지를 시킨 뒤 어깨와 목, 종아리와 무릎, 허벅지를 주무르도록 했다. A씨는 선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워 귀를 파게 한 뒤 다리가 저린 선수가 몸을 움직이자 "아프냐"며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A씨의 추행은 확인된 것만 2014년부터 2년 넘게 27차례에 달했다. 피해 선수만 6명이고, 이 중 일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다.

A씨의 상습 추행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9년 9월, 일부 선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의뢰했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함께 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A씨 사례처럼 체육계에서 성폭력 사건은 은폐되기 쉽고 장기간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성폭력 사건 대부분이 지도자와 선수라는 절대적 상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출전부터 진학까지 지도자는 선수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A씨도 15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하며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경기력 향상위원으로 활동했고, 국가대표 코치와 상비군 감독까지 역임하는 등 조직 내에서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다.

여성 스포츠인에 대한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면엔 남성 지도자 중심의 체육계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도자의 경우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녀 성비 불균형이 크다.

올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동호인 제외) 아마추어 60개 종목 지도자 2만3,768명 중 여성은 4,223명으로 남성(1만9,545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엔 남성 편중이 더욱 심하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따르면 골프를 제외한 국내 프로 4대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지도자(감독·코치) 469명 중 여성은 11명에 불과했다. 남자 종목(축구 야구 배구 농구) 지도자는 416명 전원이 남성이었고, 여자 종목(배구 농구)도 지도자 47명 중 남성이 36명에 달했고 여성은 11명이었다.

신혜미 한국여성스포츠회 이사는 "프로 스포츠의 경우 여성 선수는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이 오고, 이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다"고 전했다. 신 이사는 "아마추어 체육계는 여성 지도자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여성 지도자가 뿌리내릴 토양마저 척박한 편"이라며 "남성 위주로 짜여진 스포츠계의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2차례 돈 뺏은 코치, 편파판정 대가로 1억원 채긴 심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23) 선수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하던 날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메시지다. 최 선수는 2017년부터 2년 가까이 김규봉 전 감독과 주장 장윤정씨 등 감독과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 행위를 당했다. 최 선수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본 동료 선수 정지은(24)씨는 한국일보에 "숙현이는 1년에 100번 이상 맞았다"고 증언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최 선수가 세상을 등지고 한 달 뒤인 작년 7월 김 전 감독과 장씨를 영구제명했다. 최 선수를 폭행한 또 다른 선배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달 11일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장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을 벌 주고 징계했다고 반복되는 비리와 솜방망이 처벌로 점철된 체육계의 고질병이 사라졌을까. 23세의 어린 선수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 체육계의 비리 근절을 유서처럼 남겨 놓았지만, 지금도 문제가 된 스포츠 지도자와 심판, 선수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1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체육회가 지정한 4대 범죄(폭력·성폭력·승부조작·금품수수)를 저질러 종목별 협회의 징계를 받고도 재취업에 성공한 체육인은 13개 종목에서 30명이나 됐다. 최 선수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범죄로 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심판, 선수가 82명이나 쏟아졌다.

그 원인은 피해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에 있다.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10년 이상 지도자 폭행에 시달렸다는 전직 빙상선수 정혁주(가명·33)씨는 "선수들은 폭행과 인권 침해를 당해도 침묵한다. 가해자들이 체육계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 제기하는 선수들은 '다시는 이 종목에 발 담글 생각 않고 영원히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자들의 호소와 신음은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일보가 2005~2020년 체육계 인사들이 폭행·성폭행·금품수수·승부조작 등으로 기소된 1심 판결문 85건을 분석한 결과, 체육계 인사들의 4대 범죄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잘못된 관행과 강압적인 문화가 체육계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0개월간 10회 반복... 70%는 어른들이 저질러

한국일보가 분석한 1심 판결문 85건에 등장한 체육인들의 폭력·성폭력·금품수수·승부조작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306일 동안 9.5회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 피해자 1명에게 동일한 범죄를 10차례 가까이 반복해서 10개월 동안 저질렀다는 뜻이다.

범죄 대부분은 제자나 후배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경기 진행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이들이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4대 범죄 가운데 학교·실업팀 감독, 코치, 강사, 관장 등의 지도자가 가해자로 등장한 사건은 50건에 달해 전체 분석 판결문의 59%를 차지했다.

선배 선수, 심판, 종목별 단체 및 팀 간부 등이 연루된 사건을 합하면 소위 '체육계의 어른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비율은 70%를 넘는다.

다음 장 계속

스포츠 비리 범죄가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는 것도 판결문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인기 스포츠인 야구·축구뿐 아니라 빙상·수영·태권도처럼 세계대회가 열리면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종목, 그리고 e스포츠와 줄넘기까지 무려 25종목에 달했다.

223회 돈 뜯은 코치, 151회 걸쳐 1억 챙긴 심판

금품수수는 체육인들이 저지른 4대 범죄 중 '장기간' '반복적' 범행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진 유형의 사건으로 분석됐다. 금품수수는 전체 비리 사건 85건 중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행기간은 평균 1년 2개월(432일)에 달했고, 해당 기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금품이 오갔다.

금품수수 사건 중에선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가 13세 제자를 상대로 4년 10개월 동안 223회에 걸쳐 1,046만 원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이 코치는 지도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가 요구한 금품을 가져오지 않을 때마다 레슬링 훈련을 빙자해 그를 폭행했다. 코치의 금품 요구에 시달린 제자는 야간에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상납할 돈을 마련해야 했다. 농구 지도자들에게 편파 판정을 부탁받고, 5년간 1억여 원을 151차례에 걸쳐 상납받아 챙긴 심판도 있었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대표는 “이런 사건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체육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비리 인사들이 아직도 체육계에 많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체육계 일각에선 금품수수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로 열악한 처우를 꼽기도 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여도 높지 않아 금품비리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2020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1개 종목 지도자 2만4,712명 가운데 74.1%는 비정규직이었다.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의 지도자 수입은 연간 1,700만~2,500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연평균 수입의 52~70% 수준이다. 정현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는 “최근 들어 지도자들의 고용 형태가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되고 있지만 대부분 최저시급을 겨우 넘는 실정이고, 지도자 경력이 쌓여도 연봉은 오르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우 문제가 체육인들의 금품수수 행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허 대표는 “신분의 안정성을 잃은 체육인 일부가 이러한 행위로 ‘모험’을 거는 것”이라면서 “더 강한 징계 등으로 일탈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범죄와 같이 저지른 '제자 폭행'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자 농구부 코치는 11세에 불과했던 제자 9명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가혹 행위를 했다. 코치는 경기에 졌다는 이유로 머리를 열쇠로 때리는 등 1년 5개월간 19회에 걸쳐 제자들을 번갈아가며 폭행했다. 구타를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 9명 중 6명은 성추행도 당했다. 지도자가 폭행과 성폭력을 같이 행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도자가 선수에게 가하는 폭력은 성폭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는 “감독과 코치는 경기력 향상을 이유로 선수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훈련 과정에서 폭력을 쓰는데, 이를 '사랑의 매'로 미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 장 계속

선수를 아껴서 때렸다며 다친 부위에 약을 발라주면서 위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일부 선수들은 1년 이상 이런 경험을 거치면 감정이 무너지기도 한다. 김대희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부경대 교수)는 "지도자의 폭력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지도자의 폭행이 오랫동안 되풀이될수록 선수가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가 분석한 체육계 지도자의 제자 폭력 사건들도 대부분 '장기간-반복적'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단발성으로 끝난 사건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6개월 이상에 걸쳐 최소 4차례 이상 폭행이 반복됐다. 7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타당한 10대 선수도 있었다. 모두 지도자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위계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승부조작도 장기간·반복적 "불법 도박사이트 활용"

한국일보가 분석한 체육계 4대 범죄 중에선 승부조작 사건도 적지 않았다. 85건 중 23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승부조작 범행은 한 번 시작되면 평균 7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폭행과 금품수수 등 다른 유형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보였다.

판례 분석을 자문한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리걸엔진의 박성남 변호사는 "승부조작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하면서 범행 기간과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활용한 승부조작 사건 비율도 60%에 달했다. 박 변호사는 "승부조작을 저질러 퇴출당한 운동선수들이 아예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업 브로커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 점도 승부조작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3건의 승부조작 사건 중 절반 가까운 11건이 전업 브로커들에 의한 범행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승부조작 근절을 위해선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는 물론이고 브로커와 이용자 모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희 교수는 "승부조작에 휘말리는 현역 선수들은 '전직 선배'인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플레이가 승부조작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선수 처벌이나 징계에만 집중해선 안 되고, 불법 사행업체와 이용자 모두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번도 힘든 '미투' 빙상 선수는 왜 두 번 했을까

빙상 선수를 그만둔 대학생 하지영(21·가명)씨는 손톱에 분홍빛 칠을 했다. 언뜻 보면 화려해 보였지만, 손톱 끝자락 살은 보기 흉하게 해져 있었다. 하씨는 “불안하니까 자꾸 뜯게 된다”고 했다. 손목엔 3cm 정도 되는 흉터도 보였다. 자해를 시도했다가 꺾맨 자국이었다. 그는 한국일보에 “코치였던 박상진(가명)씨가 내 인생에 들어온 뒤 우울증이 생겼다”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2019년 1월 코치의 성추행과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에 알렸던 빙상 선수가 한국일보를 통해 재차 '미투'를 선언했다. 폭로 이후에도 대한체육회나 빙상연맹,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주변에선 하씨가 도움의 손길을 피하고 숨어버렸다고 치부하기도 했다. 그 사이 가해자로 지목된 박씨는 징계는커녕 지도자 생활을 위해 재취업을 시도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하씨는 “2019년 ‘빙상계 미투’가 터지면서 주변 권유로 언론 인터뷰를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기관 문을 두드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하씨가 지난 4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이유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가만히 있다가는 바보 되겠구나 싶었다”

2019년 초 하씨가 ‘1차 미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자신이 박씨를 직접 고소하기 전까지 사건은 2년 넘게 묻혀 있었다. 당국 조사가 아예 없진 않았다. 검찰은 당시 교육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내사했지만, 하씨가 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분했다.

하씨가 받은 충격은 또 있었다. 박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청 빙상팀 지도자 모집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하씨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대한체육회는 물론 빙상연맹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빙판에 돌아오려고 시도했던 셈이었다. 하씨는 “가만히 있다가는 나만 바보가 되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 고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억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씨는 “1차 미투로 언론 인터뷰를 할 때처럼, 혼자 나가서 또 조사받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게 정말 무서웠다.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너무 힘들어 화장실에 가서 운 적이 많았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2년 전 떠밀리듯 미투, 연맹 보호? “기대도 안 해”

2년 전 미투 당시의 유쾌하지 않은 기억은 하씨가 형사고소를 망설이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씨는 당시 폭로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지만, 주변에 있던 선배들이 강하게 '미투'를 권유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석희 선수도 미투를 했고 목소리 내는 선수가 많으니 동참하라고 설득했어요. 고민 끝에 응했지요.”

그러나 고작 19세 나이에 미투에 따른 심적 부담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았다. 하씨는 “CNN을 포함해서 언론 인터뷰를 3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성추행 피해를 계속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다. 인터뷰를 주선한 선배들에게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스케줄이 계속 잡혔다”고 전했다. 미투 폭로 이후 체육회와 빙상연맹에서 심리상담 등을 도와주려는 움직임은 없었냐고 묻자, 하씨는 “기대도 안 했다”고 했다.

정치인들도 당시 그의 마음을 감싸주지 못했다. 어떤 국회의원은 하씨를 찾아와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하씨는 “그분이 '예쁘게 생겼으니 얼굴 노출하고 방송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스케이트도 다시 시작해라. 앞으로 뭐 먹고살 거냐'라고 했다”며 어이없어했다.

가혹행위 장기간 반복... 코치는 혐의 부인

2년 전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하씨가 미투 폭로에 나선 것은 박씨의 가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기 때문이다. 하씨는 박씨가 코치로 있던 팀에 들어가기 직전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촉망받는 스피드스케이팅 유망주였다.

그런데 박씨를 만나며 불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하씨의 변호인 의견서 등에 따르면 하씨는 박씨의 사설 강습팀에 들어간 2016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

하씨 측은 박씨의 가스라이팅(상황 조작을 통한 심리 지배)도 있었다고 말한다. 하씨는 “박씨가 틈만 나면 ‘넌 국가대표 코치 밑에서 특혜받고 있다’면서 아끼는 듯한 말을 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집 가난한데 이런 식으로 할 거냐’며 욕을 하기도 했다. 그런 말을 오래 듣다 보니 정신착란도 왔다”고 말했다. 하씨는 현재 4년 넘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박씨가 속한 팀에서 빠져나올 순 없었을까. 하씨는 그저 버텼다고 했다. 그는 “엄마가 새벽까지 일하며 나를 뒷바라지했다. 코치한테 ‘성의 표시(돈 상납)’ 할 형편도 못 됐다. 내가 잘 안 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견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하씨가 주장하는 성추행과 폭행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는 문서는 받았지만, 하씨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씨의 고소 때문에 혐의가 인정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속팀 없이 빙상 개인 강습 등을 하고 있다.

‘최숙현 동료’ 2차, 3차 피해 “나쁜 기억만이라도 지워지길”

33㎡(약 10평) 남짓 자취방에는 작은 운동 도구 하나 없었다. 장래희망에 '국가대표'를 적어냈던 선수의 방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6일 대전 서구에서 만난 철인3종 경기 선수 정지은(24)씨는 "운동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다. 그는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실을 증언한 뒤 스포츠계를 떠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2차, 3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철인3종 경기 유망주였던 정씨도 스포츠 폭력 피해자였다. 2016년부터 3년간 경주시청팀에서 겪었던 폭력은 그의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지금도 잠들기 전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우울증 약을 먹는다. 하루 두 번씩 먹던 약을 그나마 1회 다섯 알로 줄였을 뿐이다. 정신적 트라우마는 대전시청으로 팀을 옮긴 뒤에도 그를 괴롭혔고, 결국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로 여겼던 운동마저 멈추게 했다.

최근 그가 빌고 있는 소원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것이다. "소,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생각이 종종 떠올라 힘들어요. 그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최면술 등 뭐든지 하고 싶어요." 당시 기억을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정씨는 어느새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대물림되는 폭력, '정당방위' 이름으로 둔갑한 경우도

그는 선수 시절 셀 수 없이,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주변의 온갖 물건으로 맞았다고 했다. 선배 선수는 후배를 때리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이유까지 만들었다. 한 선배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를 한 대 쳐라. 그래야 내가 너를 때릴 수 있잖아. 이건 정당방위야." 정씨가 주저하자 선배는 다른 선수를 시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정씨의 손이 선배의 몸에 닿아 있었다. 선배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뺨을 세 대 때렸다. 정당방위라는 이름의 폭력은 셀 수 없었다. 감독은 주장을, 주장은 선배를, 선배는 후배에게 손을 댔다. 폭력은 대물림됐다.

그는 지금도 빵을 싫어한다. 끔찍했던 경험이 선명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경북 문경 훈련 때였어요. 주장이 후식으로 콜라를 시켜서 한 잔씩 먹었어요. 영수증을 본 감독님이 여자 선수들을 불러내 살 찼다고 욕했어요. 빵을 20kg 주고 '너희가 좋아하는 빵을 토할 때까지 먹어봐'라고 했어요. 안 먹으면 때려서 토하면서 먹었어요."

훈련 중 성희롱 발언을 듣는 일도 다반사였다. "X 같은 년 엉덩이 커진 것 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접두사가 붙은 욕도 많았다. 정씨는 폭력을 정당화했던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했다. "선배가 행거로 엉덩이 전체가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뒤 멘소래담을 발라줬어요. 그러면 폭력이 나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했던 것 같아요."

다음 장 계속



최속현 선수 고발 후 1년 반... 달라진 건 없었다

최속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사이 대법원은 가해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주장 장윤정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선수의 죽음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스포츠 선수 중 처음이었다.

이처럼 겉으로는 바로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씨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우선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받았지만, 최속현 선수의 유가족은 아직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주변 선수들도 스포츠 폭력이 활귀고 지나간 상처에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기억을 힘겹게 꺼내 증언하고,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입증하다가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폭력을 증언했던 선수 대부분은 운동을 그만뒀다.

특히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의 모습은 용기를 내서 증언한 선수들을 더욱 아프게 한다. 가해자로 지목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 코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로 인해 힘들었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약 없는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중엔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보복 논란이 제기되자 취하한 경우도 있다.

뿌리 뽑히지 않은 스포츠 폭력. 끊이지 않는 제2의 김규봉 감독

정씨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건 지금도 '제2의 김규봉 감독'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서울시체육회에 서울시청 철인3종팀 지도자의 폭언, 강요, 비리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충남 도민인권센터도 천안시청 철인3종팀 감독에 의한 선수 체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 인권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세상을 먼저 떠난 최속현 선수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 그때 참 잘 견뎠어. 그때 일은 잊고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바싹 갈라진 입술을 뜯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사실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같네요." 멧쩍게 웃던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학폭 선수, '원스톱 시스템'으로 대학진학부터 국대 발탁까지 막는다

학생 선수에게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을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한다. 선수 활동은 물론, 이후 대학이나 프로·실업팀 진출에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해 운동선수의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학폭 징계 정보 공유 '원스톱 시스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운동선수들의 학폭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지난 2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회 출전 이전에 학생 선수들에게 '학교 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서약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 대회 출전기록, 입상 기록 등이 모두 취소된다. 사실상 학폭 선수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내년엔 아예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각급 학교가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학폭법상 조치 정보를 제공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곧바로 해당 종목 단체에 넘겨 대회 출전이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해당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회 출전 제한 기간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3개월~1년,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5년, 강간이나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은 10년이다.

학폭 이력 국가대표 결격 사유

학폭 이력은 이후에도 계속 따라 붙게 된다. 문체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실업팀에도 학폭 이력이 있는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내년 재정지원사업 공모 심사 때 이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반영한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에도 신인 선수의 학폭 이력이 드러났을 때 상벌 규정이 종목별로 조금씩 달랐으나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통일시켰다. 학폭이나 인권 침해 등으로 받은 징계를 국가대표 선발 결격 사유에 해당되도록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개정됐다.

주간 스포츠 소식

국가대표 키운 최병희 테니스 코치, 선수폭행에 견책 처분 그쳐 논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844>

지난 2년간 체육지도자 2,240명 자격 취소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01>

스포츠윤리센터, '회계부정' A연맹 회장에 수사의뢰 및 징계 결정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29281472&mediaCodeNo=258>

中 "日, 서로 지지하며 스포츠 정치화 않겠다는 약속 지키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4_0001701280&cID=10101&pID=10100

문체부 2차관,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개최...이행 상황 점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29281144&mediaCodeNo=258>

스포츠윤리센터 경남사무소 김해서 첫발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9>

뜨거움 안기고 하늘로 올라간 별...유상철 감독과 김홍빈 대장

<https://www.news1.kr/articles/?4533923>

한국, 일본스포츠용품 최대 수입국...일본 수출량 중 무려 45.5%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12260213003&sec_id=530101&pt=nv

국민체육진흥공단, 와디즈와 함께 스포츠 스타트업 지원

<https://www.news1.kr/articles/?453344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